

충남 청년지도자 육성방안과 과제

권경주 | 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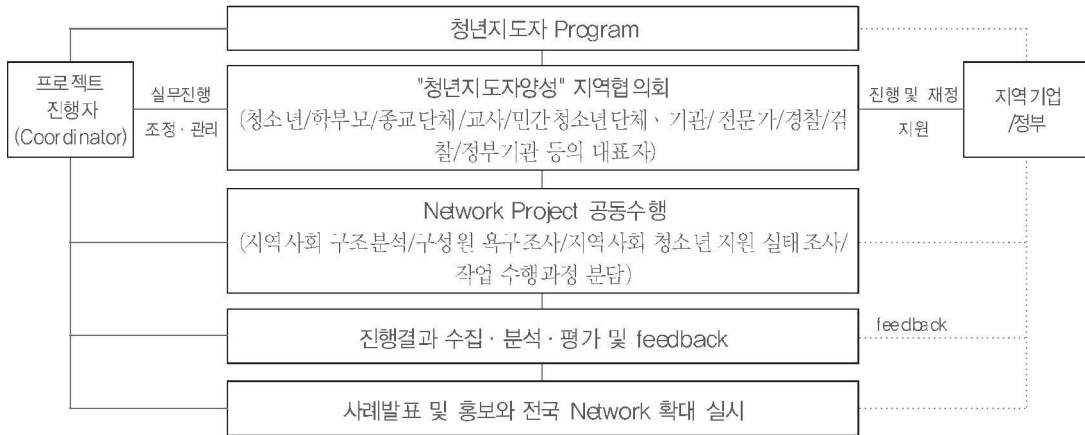
오늘날의 우리 지역사회는 급격한 산업발달과 도시화로 인한 사회변동과정을 겪게 됨으로써 사회체적 성격을 강하게 노출시키고 있다. 도시문제는 지역사회해체현상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회문제로 결과적으로 지역사회내의 청소년문제를 크게 증대시키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육성의 과제는 기성세대와 전체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기능회복을 통한 공동체 확립이 선결되어야 하며 이 중심에 지금의 청소년이 미래의 주역으로 대비하고 능력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여러 나라에서도 보편화 되어 지역공동체 교육운동을 통하여 견실한 민주시민사회를 구축한 예를 보면 덴마크의 국민고등학교, 캐나다의 농촌라디오 토론회운동, 일본의 공민관을 통한 교육운동, 서독의 국민고등학교, 미국의 지역사회학교운동 등은 잘 알려진 지역공동체운동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역사회는 단순한 주거 및 생활공간으로만 인식되어 왔을 뿐 지역사회조직, 시설의 활성화를 통

한 청소년의 복지증진이라는 적극적인 기능은 간과되어 왔었다. 이에 따라 전국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청소년기관, 단체들은 해당지역 청소년들의 특성과 요구에 기초한 지역중심의 활동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계의 결여로 많은 인력 및 자원의 낭비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사회가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기능과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자원과 서비스 운용의 중심점을 확립함으로써 지역사회내의 다양한 청소년기관과 단체들을 유기적인 협력체제로 조직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청년지도자 육성체계의 강화와 더불어 지역사회 내에 산재해 있는 제반 사회자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직화하여 지역사회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복지사회의 확립은 지역사회가 사회구성원의 복리를 위해서 투자하고 역할을 확대해 나갈 때 가능하다. 지역주민은 자기 지역사회의 청소년육성에 참여하고 관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문제는 지역주민이 지역의 미래를 이끌



지역사회 네트워크 '컴넷(ComNet) 체계도

어 갈 청년지도자의 지원확보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웃에 누가 사는지조차 모르면서 자라기 쉬운 젊은이들이 소외를 극복하고 사회를 이해하고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좋은 일이라고 해서 반드시 강제적으로 참여를 강요하는 활동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충남의 청소년지도자 양성을 위한 제언을 끝으로 논의를 마친다.

충청남도과 시 군은 청년지도자 양성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초기 형성단계에 바람직한 인적·물적 구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

즉,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홍보와 각 지역사회 자원들의 참여 및 연계, 사전 준비모임의 주선 등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하고, 사회사의 사회조사나 여러 프로그램의 개발과 수행 등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 초기단계에서의 적극적 개입과 지원

2. 네트워크 전담 운영자(coordinator)의 투입 및 재정지원

충청남도는 네트워크 초기 형성단계 과정과 프로그램 관련 지역사회 조사와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그리고 네트워크의 핵심 본부인 네트워크협의회 각 구성원의 연계·조정 및 협력체제 구축 등 네트워크 운영의 모든 과정을 전문가로서 총괄책임을 지고 이끌어 갈 수 있는 중요한 전담운영자(coordinator)를 반드시 네트워크 내에 두어야 한다.

만약, 상근 인력으로 투입하기에 현실적으로 부담이 크면 지역사회 내 전문적인 유관기관에게 위탁을 주어 그 기관의 기존 인력을 배치하고, 교육과 재교육 및 연수를 통해 코디네이터 역할을 전문적으로 대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자치단체 장의 지속적 참여 제도화

지방자치 단체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를 통하여 청년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자치단체장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네트워크 초기 형성단계에서는 경우에 따라 네트워크협의회 의장의 역할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매번 참석하기 어려울 시를 대비하여 관련 공무원이 대리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중요

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스스로와 지역구성원들 및 정부 관계자들에게 의식을 심어주도록 해야 한다.

4.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지지체와 민간부문의 공동 협력체제 구축

충청남도는 지역사회 내 청소년폭력 대책 관련 민간부문의 각 자원들 즉, 변호사, 의사, 교사, 종교인, 기업인, 학부모, 청소년지도사, 기타 청소년지도 관련 지역사회 유휴 자원인력 등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네트워크 형성단계에 지역구성원들이 의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프로그램 개발과 시행 및 코디네이터 등 네트워크 운영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 공동 협력체를 구축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조례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열거한 민간부문들 가운데 중 고교와 지역의 대학 등은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참여하려는 자세와 협력의지를 가지고 시설과 전문가들을 지원하며 네트워크 형성과 운영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5. 핵심본부인 네트워크협회의 신중한 구성 및 역할과 책임 명문화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실질적 핵심본부(headquarter)라 할 수 있는 '네트워크협회'의 구성은 향후 네트워크의 운영을 직접 주도하고 모든 사업을 결정하므로 신중히 구성원들을 선별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거나 자치적 운영을 하더라도 구성원들의 뚜렷한 역할과 책임을 조례나 협의회 규정에 명문화하여야 한다.

네트워크협회 각 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중지를 모으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 자치단체 장은 네트워크 형성단계에 제외하고는 주로 협의회 밖에서 운영을 위한 재정을 지원하고 협의회는 자치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며, 각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는 코디네이터가 조정하고 화합하는 기능을 가지고 중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네트워크 운영결과의 분석·평가 및 feedback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운영결과는 분석 및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며 그 결과가 환류(feedback)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과 시 군은 이에 필요한 소요 경비와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는 네트워크의 최종작업인 사례발표와 전국적 홍보 그리고 과정을 수료한 청년지도자들의 지역개발참여 네트워크 확산의 사전 작업 의미가 있으므로 코디네이터(coordinator)가 전문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때에 모든 가능한 지원을 통해 도와야 그동안의 노력이 효율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7. 네트워크 운영결과 사례발표와 홍보 및 모델의 전국 확산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청소년폭력문제 대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네트워크 운영결과에 대한 사례발표와 모델사례 발굴 및 홍보와 전국 network 확대 실시를 지원하기 위한 중앙정부와의 정책적인 연계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대통령 청소년 특별회의와 같은 중앙차원의 관련 사업이나 타 자치단체와의 프로그램 협력 사례 발표회를 갖고 포상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충청남도에 적합한 지역지도자 개발모델을 전국에 보급하는데 주도적인 역할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8. 법제도 제정 및 개선을 통한 네트워크 지원

충청남도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재정적으로 직접 지원하거나 또는 위탁운영자나 기관이 청소년폭력 대책 마련을 위하여 지역사회 조사나 청소년폭력 대책 관련 여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하는 등 목적사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에서 제반 여건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의 제정 및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